

2019년 1분기 경영실적

# HYUNDAI ELECTRIC & ENERGY SYSTEMS



## Disclaimer

---

본 자료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에 의해 작성되었으며, 본 자료에 포함된 2019년 1분기 경영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, 추후 그 내용 중 일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회사는 본 자료에 서술된 경영실적의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, 자료작성일 현재의 사실을 기술한 내용에 대해 향후 갱신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또한,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,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이 자료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,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들은 이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하며, 과실 및 기타의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본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(단, 출처표시 필수),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이 변경된 자료의 무단 배포 및 복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목 차]

# 1분기 연결기준 경영실적

1. 경영실적 요약
2. 부문별 매출 분석
3. 영업이익 분석
4. 영업외손익 및 당기순이익
5. Investment Highlight
6. 주요 재무지표 분석



## 1. 경영실적 요약

1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6% 감소한 4,179억원, 영업이익은 -320억원으로 적자전환 하였음.

단위 : 억 원

| 구 분      | '19.1Q |        |        | '18.4Q | '18.1Q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| QoQ    | YoY    |        |        |
| 매출액      | 4,179  | -26%   | -3%    | 5,626  | 4,301  |
| 영업이익     | -320   | 적전     | -      | 31     | -308   |
| 영업이익률(%) | -7.7%  | -8.2%p | -0.5%p | 0.5%   | -7.2%  |
| EBITDA   | -239   | 적전     | -      | 148    | -185   |
| 영업외손익    | 0.5    | -      | -      | -1,058 | -53    |
| 세전이익     | -320   | -      | -      | -1,027 | -361   |
| 당기순이익    | -259   | -      | -      | -939   | -276   |
| 지배지분     | -259   | -      | -      | -939   | -276   |

주) 당분기 K-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결 대상: 헝가리 연구소, 스위스 연구소, 인도법인, 불가리아법인, 양중법인, 상해 연구소, 중동법인, 알라바마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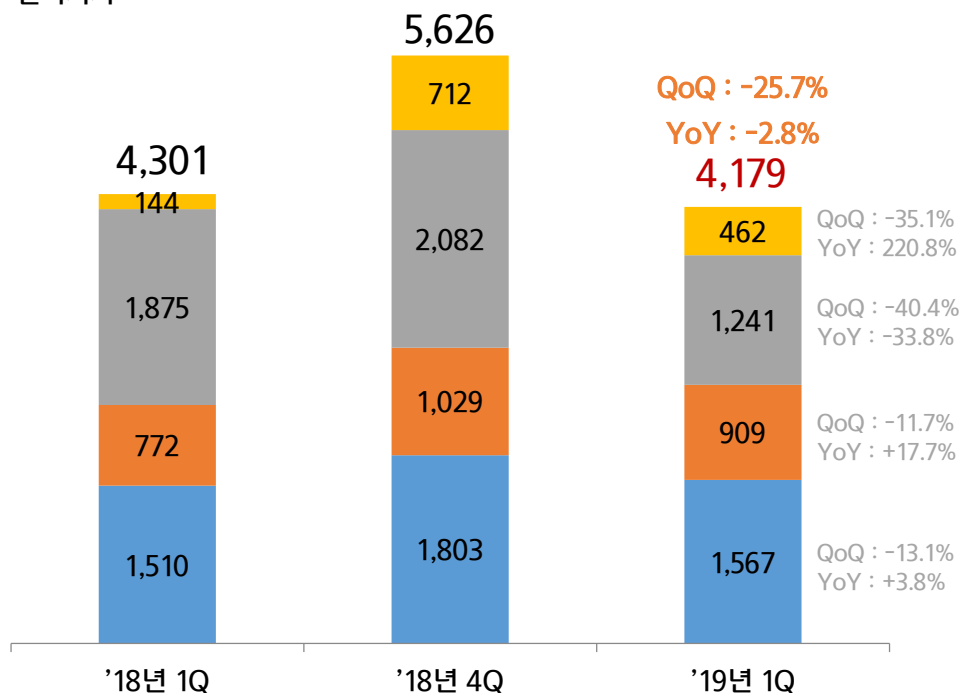
## 2. 부문별 매출 분석

발전 및 송배전 설비투자 감소/지연 등 국내 전력기기 매출 감소, ESS 업계의 화재 이슈로 인한 에너지솔루션 매출 감소 등 QoQ -26%

### 부문별 매출

- 해외법인
- 배전기기
- 회전기기
- 전력기기

단위: 억 원



### 부문별 주요 매출 증감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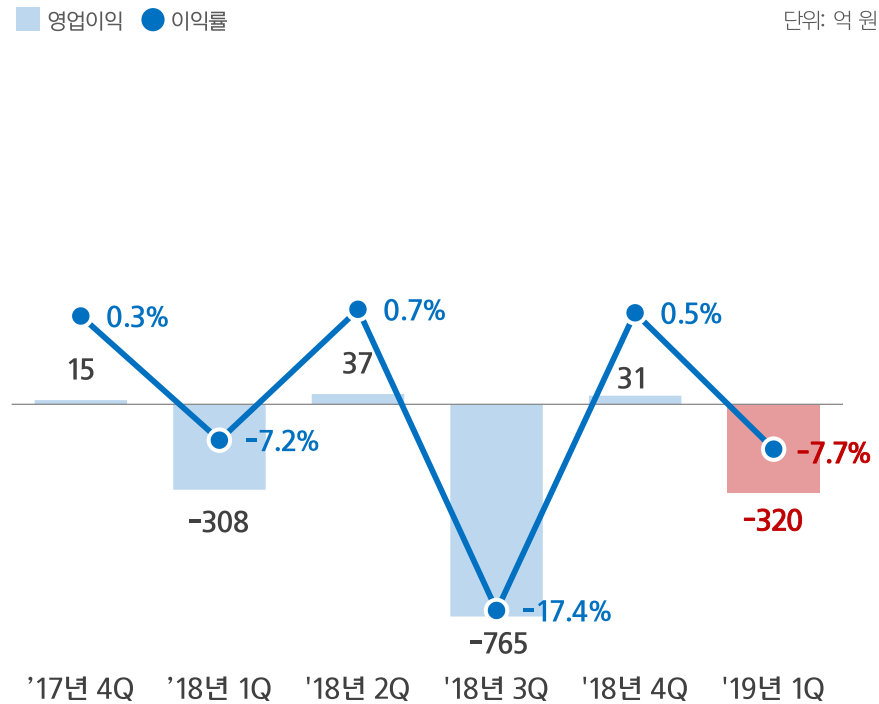
- 전력기기**
  - 국내 발전 및 송배전 설비투자 감소/지연 등으로 국내 물량 감소
  - 중동 매출은 소폭 개선
- 회전기기 / 배전기기**
  - 회전기기 국내 시장 회복 지연으로 매출 소폭 감소
  - 최근 ESS 업계의 화재 발생 이슈로 ESS 등 에너지솔루션 부문 매출 부진
- 해외법인**
  - 해외 생산법인 일부 납품 이월 등으로 연결 매출 감소 (수주는 증가)

주) 당분기 K-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결 대상: 헝가리 연구소, 스위스 연구소, 인도법인, 불가리아법인, 양중법인, 상해 연구소, 중동법인, 알라바마법인

### 3. 영업이익 분석

1분기에는 매출 규모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및 해외 시장 대비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는 국내 물량 감소 등으로 연결기준 3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 하였음

####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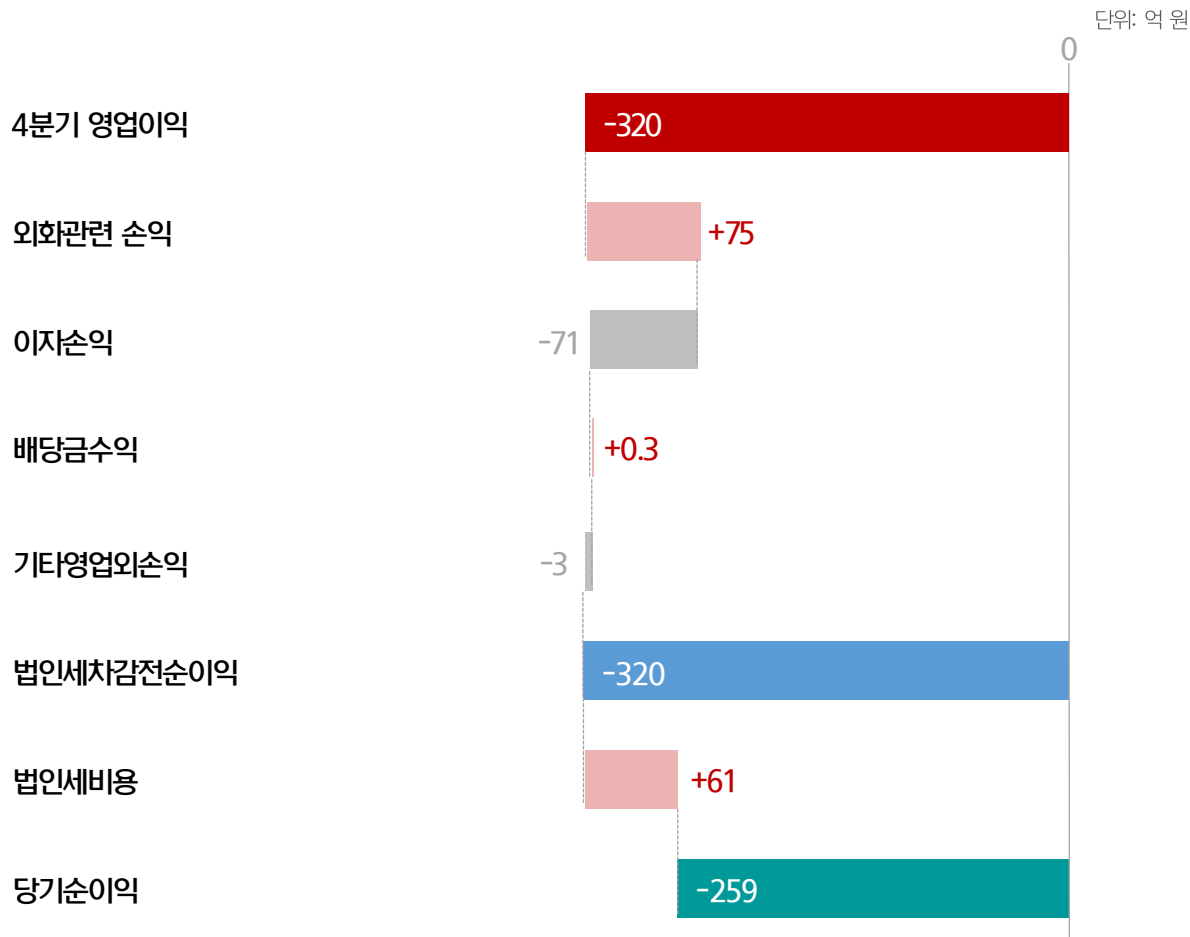


#### 부문별 영업이익 분석

|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공통</b>          | - 매출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 |
| <b>전력기기</b>        | - 해외 시장 대비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는 국내 물량 감소로 영업이익 부진                    |
| <b>회전기기 / 배전기기</b> | - 저가수주 물량 점진적 해소로 회전기 이익률 개선<br>- 가격경쟁 지속으로 국내외 배전기기 영업이익 부진 |
| <b>해외법인</b>        | - 미국 알라바마 법인, 일부 제품 품질 비용 발생 등으로 소폭 적자 발생                    |

## 4. 영업외손익 및 당기순이익

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 관련 손익 +75억 및 이자손익 -71억, 법인세 효과 +61억 등의 반영으로 259억원의 순손실 기록



- 외화관련 손익: +75억

- : 환산 손익 55억
  - 환차 손익 20억

- 법인세 효과: +61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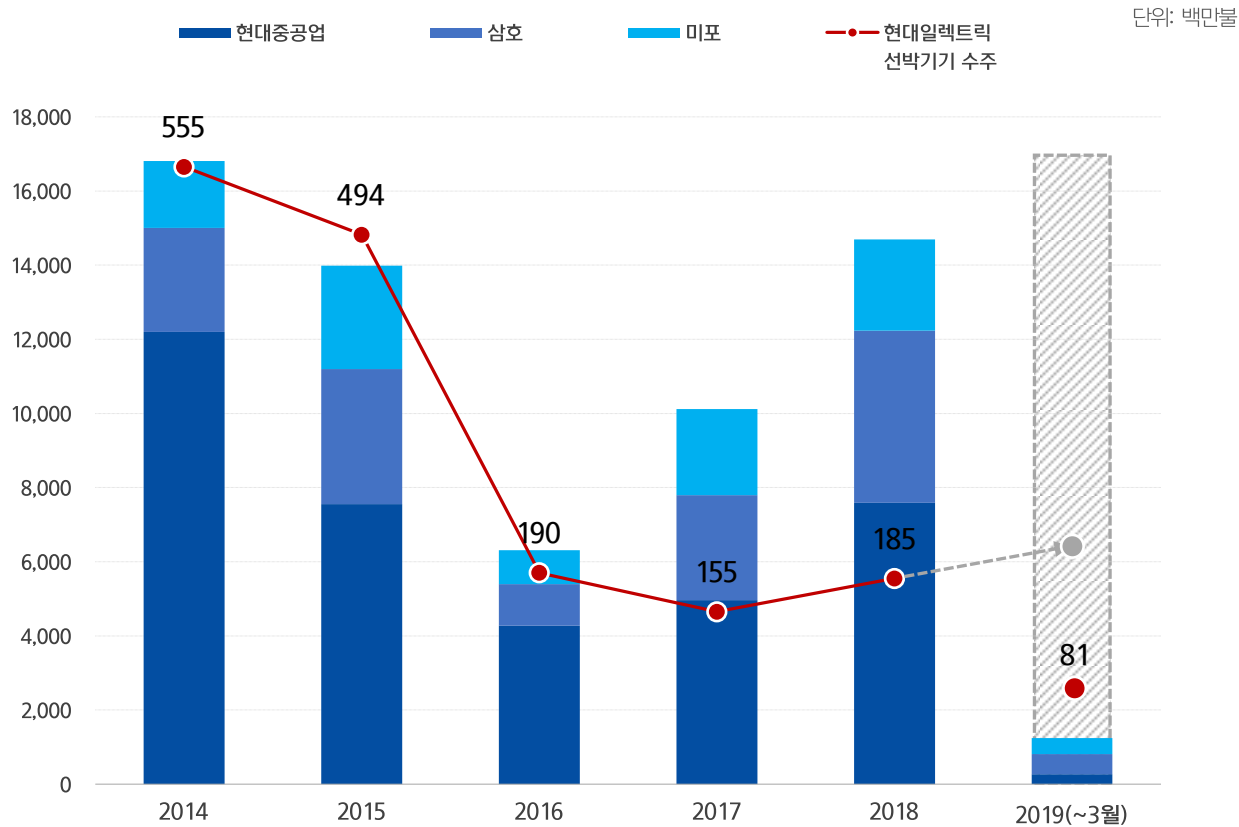
- : 결손 발생에 따른 법인세 효과 (수익)

## 5. Investment Highlight

### 1) 조선 3사 수주 추이 및 당사 선박기기 수주

'19년에도 그룹 조선 3사의 수주 증가가 예상되며, 당사 선박용 제품 수주도 '17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.  
'19년 3월 현재, 선박용 제품 수주는 전년도 연간 수주액의 44%를 이미 달성중임

#### 그룹 조선 3사 수주 추이 및 당사 선박용 제품 수주 추이



자료) 현대일렉트릭 내부 자료

-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의 신규 수주 회복세 ('16년 최저점 이후)
- 당사 선박용 제품 수주 회복세
  - : '19년 3월 현재 당사 선박용 제품 수주액은 81백만불을 기록, 전년 수주의 44%를 이미 달성중
  - 선박산업의 수주가 선박용 발전기, 배전반 수주로 이어지는 시차(6개월~1년)를 고려 시, 당사 선박기기 수주도 시차를 가지고 지속적 회복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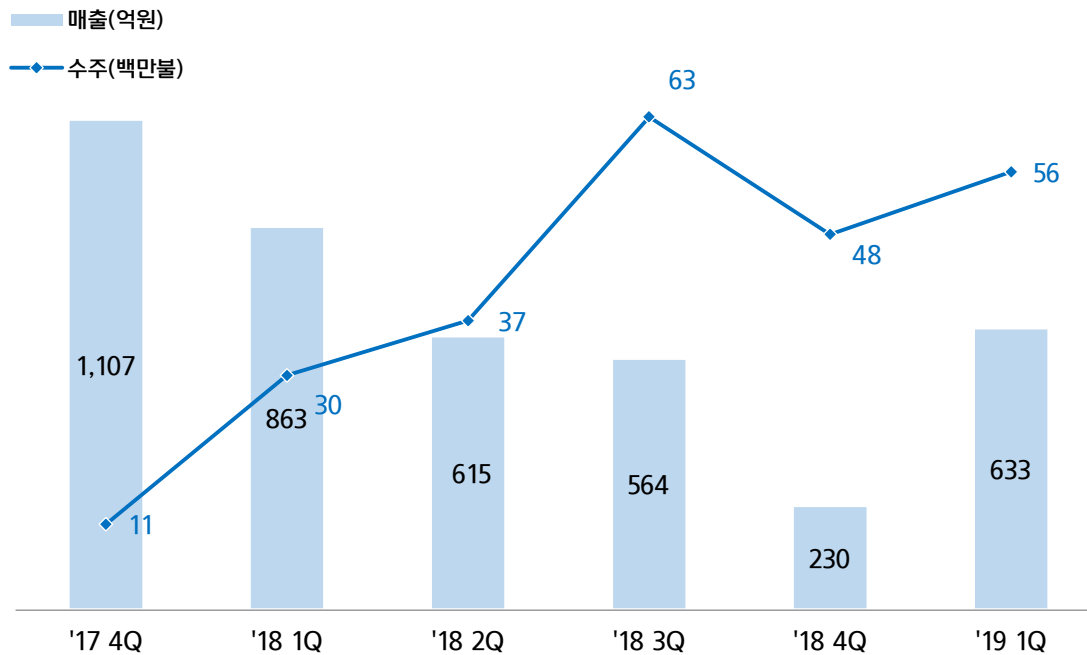


## 5. Investment Highlight

### 2) 중동 시장 수주 매출 증가 추이

유가 반등 후 그 동안 위축 되었던 중동 주요 발주국 전력인프라 투자 재개 예상. 당사의 중동 수주도 점진적인 회복세 예상. 매출도 전 분기까지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.

#### 중동 시장 당사 수주/매출 추이



출처) 현대일렉트릭 내부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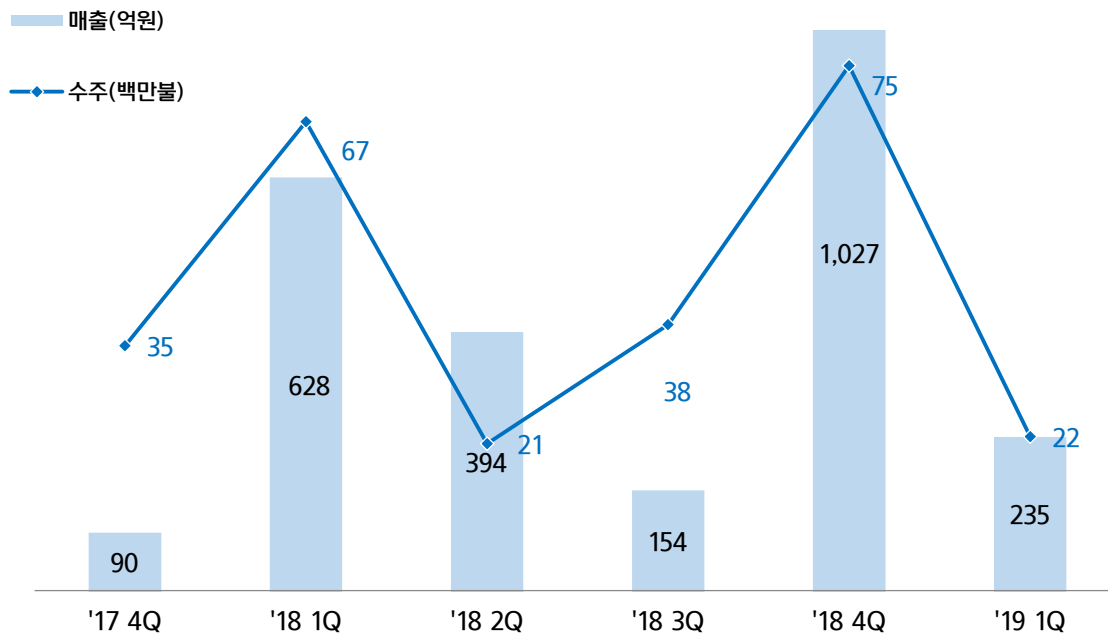
- **유가 회복으로 주요국 투자 자원 확충 예상**
  - : 유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 자원 확보로 주요국 전력인프라 투자 재개
  - 위축/지연되었던 다수 프로젝트 발주의 점진적 증가 전망
- **수주 / 매출 점진적 개선중**
  - : 1분기 중동 수주는 56백만불 규모로 점진적인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
  - : 분기별 매출도 작년 4분기까지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함

## 5. Investment Highlight

### 3) 에너지솔루션 수주/매출 전망

최근 ESS 업계 화재 발생 이슈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된 상황. 정부의 원인 조사가 완료되는 상반기 이후 시장 회복 예상.

#### 에너지솔루션(ESS 등) 수주/매출



출처) 현대일렉트릭 내부 자료

- ESS 업계 화재 이슈로 1분기 수주/매출 위축

: 최근 부각된 ESS 업계 화재 발생 이슈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된 상황임

: 이에 따라 1분기 수주는 22백만불, 매출은 235억원으로 다소 부진하였음 (수주잔고 90백만불)

: 당사 공급 건 중에는 화재 발생 건 없음

: 현재 정부 당국의 원인 조사가 진행중이며,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시점인 5월 이후 시장 회복 예상됨

## 6. 주요 재무지표 분석

### 요약재무상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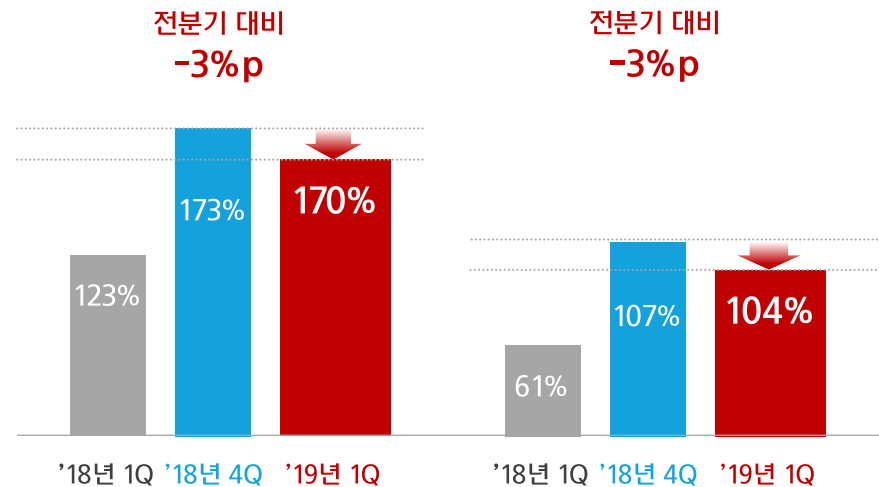
단위: 억 원

| 구 분        | '18년 1Q | '18년 4Q | '19년 1Q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<b>자산</b>  | 22,603  | 23,261  | 22,330  |
| 유동자산       | 16,116  | 16,517  | 14,997  |
| 현금 및 현금성자산 | 3,945   | 3,763   | 2,805   |
| 비유동자산      | 6,487   | 6,744   | 7,333   |
| <b>부채</b>  | 12,467  | 14,748  | 14,065  |
| 유동부채       | 10,796  | 11,233  | 8,875   |
| 비유동부채      | 1,671   | 3,514   | 5,190   |
| 차입금        | 6,167   | 9,067   | 8,586   |
| 순차입금       | 2,222   | 5,303   | 5,781   |
| <b>자본</b>  | 10,136  | 8,513   | 8,265   |

### 부채 및 차입금비율 변화

부채비율(부채총계/자본총계)

차입금비율(총차입금/자본총계)



#### • 1분기 회사채 상환 등으로 부채, 차입금 비율 소폭 감소

- 부채비율: '18년 4Q(173%) → '19년 1Q(170%)
- 차입금비율: '18년 4Q(107%) → '19년 1Q(104%)

주) 당분기 K-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결 대상: 헝가리 연구소, 스위스 연구소, 인도법인, 불가리아법인, 양중법인, 상해 연구소, 중동법인, 알라바마법인

Appendix.

## 영업환경(시장전망)



# 1. 영업환경 - 시장 전망

최근 국제 유가 회복으로 중동지역 발주의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고 있으며, 경제 성장 지속으로 동남아 지역의 지속적 발주가 예상됨.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각국의 관심 증대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도 예상됨

## 주요 지역 시장별 영업환경

| 중동  |   | 유럽 |  | 미주 |  |
|-----|---|----|--|----|--|
|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제유가 회복으로 중동지역 투자 발주 증가, 관련 수요 점진적 회복 전망(전제품)</li> <li>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및 UAE EXPO 관련 인프라 투자 증가 예상(전력기기)</li> </ul>           |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국, 독일, 덴마크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예상 (전력기기)</li> </ul>  |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가 회복으로 Shale Gas 산업 투자 지속(회전기기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저가 경쟁사 및 현지 제조사와의 경쟁 심화 예상(전력기기)</li> </ul>   |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BB, Siemens 등 글로벌 업체의 중국/인도산 반제품 사용 증가세(회전기기)</li> <li>고객사의 신규 전동기 Vendor의 참여 허용 확대 추세에 따라 가격 경쟁 심화(회전기기)</li> </ul>             |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국 트럼프정부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/고율의 덤핑관세 부과(전력기기)<br/>→ 알리바마법인 생산능력 확대에 대응</li> </ul> |
| 아시아 |   | 국내 |  |    |  |
|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베트남, 인도네시아 IPP 발전 사업 및 ODA 자금 공사 집중 유치중(전력기기)</li> </ul>   |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도체, 석유화학 업종 투자 지속 예상(전력기기, 배전기기)</li> <li>조선시장 회복으로 박용 전장품 수요 회복 예상(선박기기)</li> </ul>   |    |  |
|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태국, 말레이시아 발전설비 포화로 신규 투자 둔화 전망 (전력기기)</li> <li>선진업체들의 M&amp;A를 통한 중저가시장 진출 확대(Schneider의 인도 L&amp;T 인수, 배전기기)</li> </ul> |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전 적자 지속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및 지연 가능성(전력기기)</li> <li>대형 화력/원자력 발전소 건설 위축 예상(전력기기)</li> <li>화재 발생 이슈로 ESS 시장 단기적 위축(에너지솔루션)</li> </ul> |    |  |

출처) 현대일렉트릭 내부 자료



이 종목의 더 많은 IR정보 [확인하기](#)

**IR GO**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.